

# 국사무형유산 선자장 · 나전장 예술혼

국립무형유산원, 12일 개막공연 '장인의 시간들- 빛과 바람' 개최

국립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알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올 해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 <장인의 시간들- 빛과 바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막공연은 국사무형유산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와 나전장 박재성 보유자의 삶과 예술혼을 현대적인 무대 연출과 조명, 음악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는 전주에 거주하며 합죽선을 기업으로 이어오던 외가에서 합죽선 제작 기술을 배웠으며, 70년간 우리 조상의 풍류와 멋을 대표하는 정통부채의 정교한 기술과 아름다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한 나전장 박재성 보유자는 통영에 거주하며, 57년간 나전 기술을 연마하고, 2008년 경남 최고 장인으로 선정됐다. 2023년 나전장 굵은 질 장인으로 인정되면서 보유자가 없던 굵은 질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연 연출은 전통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인보 연출이 맡았으며, 안무가 심준영, 사운드아티스트 주준영, 설치미술가 이휘순, 영상작가 라지음이 협업한다. 공연 무대에는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 나전장 박재성 보유자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창작단체 리퀴드 사운드, 거문고 강태훈, 생황 한지수 씨가 함께한다.

이번 개막공연은 전석 무료며, 2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사전 예약 후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1501)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무형유산 장인들과의 협업 공연을 선보여 국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무형유산 전승 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장인의 시간들- 빛과 바람 포스터

#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 시민공방

5~10월 총 16회 국사무형유산 이수자와 함께하는 교육 운영

국립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5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국사무형유산 이수자와 함께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한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2025년 전통공예 시민공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전통공예 시민공방'은 무형유산 가능 종류의 전통 기법과 재료를 활용해 공예작품을 만들어 보는 성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공예에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기(염색장 과정)와 2기(자수장 과정)로 나눠 진행된다.

운영속 국사무형유산 염색장 이수자와 윤정숙 국사무형유산 자수장 이수자가 각 과정의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생들은 △전통 염색기법을 활용한 스카프, 식탁보(테이블러너), 컵받침 등의 생활소품 △전통 자수 기법을 활용한 향낭, 미니액자 등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공예품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염색장 과정은 오는 8일까지, 자수장 과정은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윤영숙 염색장 이수자 윤정숙 자수장 이수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전자 우편(sjv816@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나, 재료비(1인당 10만 원 내외)는 개별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4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민 누구나 무형유산을 손쉽게 익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통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남원시 '달빛정원', 춘향제 찾는 시민 위해 단장 한창

남원시가 31년간 방치된 구)비사벌 콘도 부지(어현동37-84)를 '달빛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제95회 춘향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단장에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달빛정원'은 총사업비 119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면적 3,829㎡ 규모로 실감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사업은 합과우아트밸리와 주변 광한투원, 춘향테마파크등과 연결하는 문화·관광 벨트를



형성해 새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달빛정원은 기존의 광한투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동선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 동선을 형성하여 지역 예술인과 창작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 창작·교류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달빛정원과 피오리움은 남원의 로컬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을 융합하여 미래형 관광 콘텐츠를 실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달빛정원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즐기며, 남원의 문화적 가치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옷칠 목공예 춘향제서 만난다

남원시는 제28회 옷칠 목공예대전을 개최하고 출품작을 접수받으며, 수상작 37점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를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사무형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목공예 대전은 수많은 옷칠 목공예가를 배출한 한국 현대 옷칠 목공예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대전이다.

목공예대전의 지향점은 전통 옷칠 목공예의 계승과 신진작가들의 발굴과 육성에 있으며, 최근에는 옷칠로 디자인한 현대적 감성의 일상생활 목공예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봄맞이 '화전(畵展)놀이'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이 봄을 맞아 오는 5일 화전(畵展)놀이 행사를 마련했다.

화전(畵展)놀이는 야외광장 바다에서 꽃그림 그리기 체험하는 야외 행사로, 우선시 원활한 진행과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5월 3일로 연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화전놀이는 봄날 자연 속에서 꽃을 감상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봄을 즐기고 전통문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자연을 배경 삼아 자유롭게 예술을 창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객들이 미술관 야외광장 바닥을 캔버스 삼아 물에 지워지는 분필로 다양한 색의 꽃을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미술관 1층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분필을 제공받아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에 참여한 후 미술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개인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인증하면 커피박 연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도립미술관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신소장품 기획전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익산시, 제1호 시민기록물 기증자 탄생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개관 100일 맞아 기증식 가져... 정인원씨, 112건 기증

익산시민의 손으로 수집된 귀중한 기록물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산으로 남는다.

익산시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개관 100일을 맞아 1일 시민기록물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호 기증자인 정인원씨가 가문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기록물 112건을 익산시에 기증했다.

기증된 기록물은 배산을 사패지(賜牌地)로 받아 문중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일 정씨 가문의 것으로, 모은 정동식과 그 부친 민포 정재호가 받은 △흥배 △사귀 △교지를 비롯해 고서 25건과 고문서 87건이다.

특히 정재호의 효행과 충절이 담긴 '통문', '훈령' 등은 조선시대의 사회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조선시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호구단자'와 '간찰'을 비롯해 전북 유학자들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청금단', '전북교임록' 등은 익산 지역학 연구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재호의 시와 글들을 엮은 문집인 '민포집'도 눈길을 끈다. 정재호는 88세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광무 8년(1904년) 정문(旌門)이 세워지며 그의 충절이 기려졌다.

시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기록물을 디지털 화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록물 기증



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전화(063-859-4622)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인원 씨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개관하면서 기록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며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귀한 기록을 기증해 주신 정인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뜻깊은 기증을 계기로 익산의 기록문화가 한층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궐에 만의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적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